

이하는 국가직 7급 영어 시험 [봉]책형 문제의 해설입니다.

문1.

[유형] 문법 : 맞는 · 틀린 문장 고르기

[해설] ① Who를 문장 맨 앞으로(think, believe, guess 등 판단 동사의 목적절로 쓰인 간접의문문은 의문사를 문두에 위치시킴) ② is it→it is(간접의문문은 S+V의 어순) ③ that→what(이하가 불완전한 문장임) ④ 혼합 가정법으로 맞는 문장임.

[정답] ④

문2.

[유형] 문법 : 맞는 · 틀린 문장 고르기

[해설] ① made 앞에 관계대명사 who를 삽입(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음) ③ as→than(비교급 비교투) ④ impolite→being impolite(타동사 mind의 목적어가 단순 형용사가 될 수 없음).

[정답] ②

문3.

[유형] 문법 : 맞는 · 틀린 문장 고르기

[해설] ④ to work out→(in) working out(be busy (in) ...ing 또는 be busy with 명사).

[정답] ④

문4.

[유형] 문법 : 틀린 밑줄 찾기

[해설] ③ the writer→the writers(most는 수량 공통 부정 대명사 또는 수량 공통 부정 형용사로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복수 명사를 전제로 함. 뒤의 동사의 수가 are로 일치되어 있는 것도 힌트).

[정답] ③

문5.

[유형] 어휘 : 동의어

[해설] lucrative 유리한; 이득이 되는.

[정답] ②

문6.

[유형] 어휘 : 동의어

[해설] soar 높이 치솟다; 급증하다.

[정답] ①

문7.

[유형] 문장완성 : 어휘 유형

[해설] /...강도사건에 다른 누군가를 _____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에 적합한 어구적 호응은?

[어구] implicate 연루시키다; 함축하다 intricate 복잡한; 복잡하게 만들다 pilfer 훔도둑질하다 summarize 요약하다.

[정답] ①

문8.

[유형] 표현

[해설] as a last resort 최후의 수단으로서 resort to ...에 호소하다, ...에 의지하다, ...의 힘을 빌다.

[정답] ④

문9.

[유형] 문법 : 영작

[해설] ④ not을 삭제('...하지 않도록'을 뜻하는 부정 목적 접속사 lest 절에는 동사를 R 또는 should R을 쓰며, 중복 부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

[정답] ④

문10.

[유형] 문법 : 영작

[해설] ① out of bad humor→in bad humor 또는 out of (good) humor(out of bad humor는 '나쁜 기분을 벗어난'의 뜻으로 오히려 '기분이 좋은'의 뜻이 됨).

[정답] ①

문11.

[유형] 생활영어 : 고유 표현

[해설] 밑줄 부분은 '네가 임신했다고 들었어'의 뜻. She is pregnant. She is expecting. She has a visit from the stork. She is eating for two. 등은 모두 '그녀는 임신중이다'의 뜻. 빈칸에는 '예정일이 언제야?'를 뜻하는 When is the blessed event? When are you expecting? When are you due? When is your baby due? 등이 와야 적합함.

[정답] ①

문12.

[유형] 생활영어 : 고유 표현

[해설] 우리 둘은 서로 잘 통한다. = We are talking[speaking] the same language. We are on the same[identical] wavelength. We have the right chemistry. ③ be in sync[synchronization] with ...와 일치하다; ...와 잘 통하다 ④ be through with ...를 끝내다; ...와 사이가 끝나다.

[정답] ④

문13.

[유형] 문장완성 : 논리 유형

[해설] /...자기 자신의 고유한 힘이 아니라 바람과 끈에 의존하는.../과 순접 관계는?

[정답] ②

문14.

[유형] 문장완성 : 논리 유형

[해설] /...비록(Although) 수목들과 관목들은 쾌적한 환경(pleasant surroundings)을 한껏 살리기 위해 전 지역에 걸쳐 흩어져 있을(be interspersed) 수도 있지만.../과 대조 관계는? 단서어 pleasant surroundings(쾌적한 환경)과 be interspersed(흩어져 있다)의 대조 관계가 각각 scientific relationships(과학적 관계)와 be grouped(무리 지어 있다)에 해당함.

[정답] ②

문15.

[유형] 독해 : 글의 흐름 : 순서 배열

[해설] 제시문 /...암이란 비정상 세포의 임의적인 성장 및 확산을 특징으로 하는 일단의 질병(disease)이다.../ 뒤에 이어질 글의 순서는 (다) 암 치료에 대한 일반 진술(제시문의 disease가 the disease로 반복됨). (가) 어떤 유형의 암들은 더 복잡한 치료 방법을 요구로 함. (나) 하지만(however) 암으로 인한 사망 건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임.

정답 : ③

문16.

[유형] 독해 : 글의 전체 내용 : 제목

[해설] 첫 문장 /...만일 사람들에게 어떤 동물을 가장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지를 물어보면 아마도 스킨크, 박쥐, 뱀, 쥐와 같은 동물들을 듣게 될 것이다.../ + 끝 문장 /..."박쥐는 모기를 없앨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수단이다"라고 Austin 교수는 말하고 있다.../ = 첫 문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동물들이.../ + 끝

문장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제목은 ② 동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정답] ②

문17.

[유형] 독해 : 글의 전체 내용 : 주제

[해설] 첫 문장 /...첫째로, 식민지 시대에는 교육의 주요 목표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과 선행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 끝 문장 /...끝으로, 20세기에는 시골로부터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학교가 사회 문제에 보다 관여하도록 만들었다.../ = 첫 문장 /...식민지 시대의 교육의 목표.../ + 끝 문장 /...20세기의 학교의 역할.../ = 과거와 현재의 교육의 역할 변화.

[정답] ③

문18.

[유형] 독해 : 글의 전체 내용 : 주제

[해설] 첫 문장 /...농업은 늘어나고 있는 인구에 대한 식량 공급의 책임이 있으며, 생산량이 무제한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자명해짐에 따라 영농의 지속 가능성이 점차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 끝 문장 /...비록 운작을 계획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의 상당 부분이 유기농 종사자의 우려이겠지만, 운작은 결코 유기농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첫 문장 /...영농의 지속 가능성이 점차 중요한 문제이다.../ + 끝 문장 /...운작은 모든 영농 부분에 적용되어야 한다.../ = 영농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 운작의 역할이 중요함.

정답 : ①

문19.

[유형] 독해 : 글의 세부 내용 : 일치 및 불일치

[해설] ③ 일꾼의 죽음은 필자에게 코끼리를 쫓아 죽일 빌미를 제공했다.

[정답] ③

문20.

[유형] 독해 : 글의 세부 내용 : 일치 및 불일치

[해설] ② 당신의 아이가 보다 활동적이길 원한다면 아이에게 공을 던져주어 보아라.

정답 : ②

총평 · 학습방법 · 향후전략

1. 서언

먼저 늘 강조해왔듯이 영어시험은 어휘, 문법, 독해의 세 영역이 아니라 어휘, 표현, 생활영어, 문법, 문장완성, 독해의 여섯 영역이라는 점을 이 지면을 통해 새삼 강조하고 싶다. 더욱이 공무원 영어 시험 중 가장 다양한 영역에 걸쳐 문제를 구성하는 7급 영어의 경우 공부해야 할 세부 영역이 여섯 영역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끝은 불 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

올해 국가직 7급 영어는 어휘 2, 문법 6, 표현 1, 생활영어 2, 문장완성(독해에 포함됨) 3, 독해 6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7급 시험의 평균적인 출제 영역별 구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정답 공개의 원년이었던 작년에 비해 난이도는 다소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어휘 : 2 문항

어휘는 변함 없이 2~3 문항이 출제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필수어휘의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다. 어휘 자체의 수준은 7급

어휘로서의 걱정 난이도에는 못 미치지만, 문장완성 및 독해 문제 해결의 밑천이 다름 아닌 어휘력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학습과정에서 필수적인 핵심어휘에 대한 일괄적인 정리는 반드시 해두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정답 공개 이후 9급과 7급의 어휘 수준이 절대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어휘는 반드시 숙지해야 하지만 모든 어휘를 다 외우려고 하거나 어휘공부 자체에 중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어휘는 영어공부의 시작이며 끝이지만 어휘 때문에 다른 영역을 등한시해서는 결코 효과적인 영어학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표현 및 생활영어 : 3 문항

표현 및 생활영어 영역의 구성비율은 평균 2~3 문항이 출제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그 구성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표현 및 생활영어는 문제대상이 될 수 있는 학습범위의 설정이 가장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시험 전까지 한번도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시험을 치른다면 낭패를 보기가 가장 쉬운 영역이다. 그 동안 출제되어온 여러 영어시험의 표현 및 생활영어를 대한 정리가 가장 시간 효율적인 학습방법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잘 정리된 자료집이나 요약집이 가장 관건이 된다.

4. 문법 : 6 문항

최근 3년 동안 문법문제가 계속 7 문항을 유지해왔듯이 7급 영어에서 문법은 6~7 문항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영어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다. 또한 출제유형에 있어서도 빈칸 채우기, 틀린 밑줄 찾기, 맞는·틀린 문장 고르기, 영작의 모든 유형이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험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맞는·틀린 문장 고르기와 영작 유형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꽤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들은 모두 핵심 문법사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문법 전반에 걸친 체계적 학습을 거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문법 학습에서 명심할 점은 단순히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문제유형에 따라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문법 영역은 학습시간에 비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학습과정 중에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르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

5. 문장완성 : 3 문항

최근 들어 가장 두드러진 독해유형의 특징은 수험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장완성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독해의 가장 커다란 부분이 되어버린 문장완성 유형은 핵심어휘, 필수구문, 글의 논리성 등을 가장 합목적으로 갖춰줄 수 있는 유형으로 독해학습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며, 개별 유형으로서 인식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타당하고 객관적인 기출문제를 위주로 충분히 익숙해진다면 오히려 시간절약과 점수향상에 기여할 여지가 가장 큰 부분이며 독해에서 가장 변별력이 높은 부분에 해당한다.

6. 독해 : 6 문항

문장완성 유형을 제외한다면 순수한 독해 문제는 늘 5~6 문항의 평균을 보인다. 특히 올해 7급 영어의 독해 난이도는 7급

문제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 난이도가 평이했다. 한마디로 평균 수준의 어휘력, 구문력, 대학개론 및 일반 상식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지엽적인 주제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직독직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언제나 수험독해의 대상이 되어온 내용을 중심으로 절대량 이상의 일반 독해 문장들을 평소 꾸준히 소화해야 할 것이다.

독해 학습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전체내용(요지, 주제, 제목, 감상), 세부내용(일치 및 불일치, 특정정보파악, 지칭추론), 글의 흐름(순서배열, 삽입, 삭제, 전후문단추론, 연결사)의 유형 중에서 자신이 강한 부분은 유지 위주로 학습하고, 자신이 약한 유형을 상대적으로 보완해나가는 차등적인 학습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7. 총평 및 향후 전략

올해 국가직 7급 영어도 고유의 문제 영역별 구성원칙은 지켰다. 최근의 난이도 정도의 7급 영어 시험이라면 앞으로의 공부에서의 초점은 세부 영역들을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깊이는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부한 범위의 내용만큼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 했던 것인데... 본 것 같은데... 이걸 모르는 것이다. 앞으로 공부에서의 관건은 '열심히'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7급 영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 핵심어휘에 대한 일괄적인 정리(절대로 도를 지나치지 않는) 2) 표현 및 생활영역에 대한 일괄 정리(시험 직전에는 최소한 수 차례 반복을 해야 하는) 3) 기출된 빈출 문법사항에 대한 유형별 파악(응용력을 기르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 4) 문장완성 유형에 대한 숙지(오히려 다른 독해 유형보다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5) 상대적으로 약한 독해 유형에 대한 보완(아무 독해 문제나 닥치는 대로 푸는 것이 아닌) 등이 앞으로 실천해나가야 할 전략일 것이다.

'제대로' 된 전략하의 규칙적인 학습이라면 분명 자신이 목표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다. 이제부터라도 그 공부를 자신이 기울인 노력이 그에 걸맞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하자. 자신감을 갖자. 자신을 믿자. 7급 영어... 그만 거 한방에 날려보낼 수 있다... 그거 껌이다.